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4년 12월 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박상희 창조행정담당관(044-203-5530), 이종경 사무관(5533)

산업부,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본격 추진

- 발전5사는 3년간('15 ~ '17년) 1.2조원 규모의 생산성 기여액 창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12. 4. (목) 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'산업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및 정상화 추진회의'를 열었다.

○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추진체계를 공유하며,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상황*을 점검했다.

* 부채감축은 계획대비 정상 추진중이며, 방만경영은 소관 41개 기관 모두 노사 합의를 통해 개선 완료

□ 산업부는 지난 3월 '공공기관장 워크숍'에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, 그간 전문기관(한국생산성본부)과 함께 민간전문가,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성 향상 추진체계를 확립했다.

* 산업부 공공기관장 워크숍('14.3.6),이후 한국생산성본부와 추진방향 마련(5~6월), 공공기관 생산성 워크숍(8.22)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

○ 각 공공기관이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, 구조화되고 계량화된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.

○ 기관의 설립목적과 본연의 업무를 전체 가치사슬(Value Chain) 측면에서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도출했다.

□ 1차적으로 발전5사(동서, 남동, 남부, 서부, 중부발전)는 금년에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.

○ 발전5사는 생산성 향상 계획을 통해 '15 ~ '17년까지 3년간 총 1조 2,267억 원의 「생산성 기여액」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.

- 「생산성 기여액」은 기관의 자율적인 생산성 노력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생산성 혁신 활동을 통한 비용절감액 또는 매출창출액을 의미한다.

* (비용절감 사례) 발전사가 연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력 강화 노력을 추진하여 연료구매 비용을 절감한 경우

* (매출창출 사례) 발전사가 무고장운동 노력을 통해서 고장없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거나, R&D 기술이전을 통해 추가 매출 창출

[ ] 발전5사는 건설·연료구매부터 발전까지 모든 단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해

○ 연료구매 비용, 자재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발전설비 운영, 현장중심 인력운용, 기술인력 활용, 연구개발(R&D)성과활용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.

<가치사슬(Value Chain) 상의 주요 추진과제>



○ 또한, 발전5사 공동의 협업과제*를 추진하여 개별기관 뿐만 아니라 발전사 클러스터 단위의 생산성 향상도 추진한다.

* 고장사례 공유채널 운영, 연료 공동구매, 정비예비품 공동관리, 외자구매 및 자재정보 DB시스템 구축 등

<향후 3개년('15~'17) 발전5사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 예시>

◈ **동서발전** : 생산성 기여액 2,039억원 창출

○ 전사 차원의 **발전소 무고장 운전문화**를 정착하여, 안정적인 발전설비 운영

→ 전사업소 발전기가 200일 무고장달성 중으로 '17년까지 680억원 기여액 창출

○ 창조적 Job Sharing인 **교대근무체계(Multi-Engineer組)를 운영**하여 인건비 증가없이 기존 장시간 근로환경를 개선

→ 약 1만 시간 대체근무시간 축소 및 1억원 비용절감('14.3~9월), '17년까지 11억원 생산성 기여액 창출

◈ **남동발전** : 생산성 기여액 4,404억원 창출

○ **연료조달 통합정보시스템**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연료 조달 전과정 공급망 관리로 연료구매비용 절감

→ 국제시장가격 대비 3년간('15~'17년) 3,576억원 비용절감

○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**석탄회(灰)를 산업소재** 등으로 **재활용**

→ 현재 68% 수준의 석탄회 재활용률을 '17년까지 80% 이상으로 향상

◈ **서부발전** : 생산성 기여액 2,988억원 창출

○ **IT기반(RFID) 자재재고관리** 적용 품목과 대상 사업소를 확대하여 자재관리 효율성·투명성 제고

→ '16년까지 전사업소로 확대 적용하고 '17년까지 182억원 관리비용 절감

○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한 국내외 발전사업의 건설관리, 운영관리 사업 추진

→ 인도, 인니 등 기술자문 등을 통해 '17년까지 1,406억원 수익창출 기대

◈ **남부발전** : 생산성 기여액 947억원 창출

○ **생애주기형 발전소 설비관리**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

→ 발전손실을 최소화하여 '17년까지 22억원의 생산성 기여액 창출

○ 기술경영체계를 통해 사업화 단계 고부가가치 기술의 활용도 제고

→ '17년까지 총 7.6억원 규모의 기술이전료 수익 창출

◈ **중부발전** : 생산성 기여액 1,889억원 창출

○ 정비기술 자립과 부품국산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설비 신뢰성 제고

→ 가스터빈 1,006 부품 중 833품목을 '16년까지 국산화

○ **연료 운송비용 절감**을 위해 선박배정, 입찰제도 개선 추진

→'17년까지 선박운임비용 140억원 절감

□ 산업부는 발전5사의 생산성 향상 사례를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하면서 차질없이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.

○ 발전5사를 제외한 12개 공기업형 기관*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계획을 보완하여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.

* 한전, 가스공사, 석유공사, 한수원, 지역난방공사, 석탄공사, 광물자원공사, 한전기술, 한전KPS, 한전KDN, 한전원자력연료, 가스기공 등

○ 나머지 준정부기관형* 24개 기관도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.

* (준정부기관형) 정부위탁사업, 기금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기업형 기관이 아닌 무역보험공사, 코트라, 원자력환경공단 등 24개 기관

○ 향후 산업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기관별 생산성 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,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.

□ 산업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은 자발적인 노력인 만큼 기관 간 비교나 평가 보다

○ 기관별로 설정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 기관별 경험을 공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.

□ 윤상직 장관은 “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질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내고,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이다.”라고 강조하며,

○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부채감축계획의 차질없는 이행과 방만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했다. 끝.

※ 붙임

참고1: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및 정상화 추진회의 개요
참고2: 생산성 기여액
참고3: 발전5사 주요과제 추진내용
참고4: 발전5사별 생산성 기여액 목표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이종경 사무관(☎ 044-203-55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및 정상화 추진회의 개요

□ 목적

○ 공공기관의 **질적 성장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**을 위해 투입 대비 산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**생산성 체계 구축**

○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**이행실적 점검**

□ 회의개요

○ **일시/장소** : ‘14.12.4(목) 14:00~ / 산업부 대회의실(12동 506호)

○ **참석자** : **산업부 장관**, 기획조정실장, 에너지산업정책국장, 정책기획관, 41개 공공기관장, 한국생산성본부 등

○ **주요내용**

-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현황(14년도 정상화 추진달성 점검)
-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추진방향 발표(산업부)
-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 발표(남동발전)

* 금번에 수립한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과 그간의 추진실적 발표

□ 세부 일정

시 간		세 부 일 정	비 고
14:00~14:10	10′	· 모두 말씀	장관님
14:10~14:15	5′	·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현황	산업부
14:15~14:25	10′	·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추진방향	산업부
14:25~14:35	10′	·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 발표	남동발전
14:35~14:25	50′	· 토론	참석기관
15:25~15:30	5′	· 마무리 말씀	장관님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참고1 생산성 기여액

□ 생산성 기여액 개념

○ **(의 미)** '생산성 기여액'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·관리하기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

○ **(조작적 정의)** 생산성 기여액은 공정혁신, 기술혁신, 프로세스 혁신, 효율적 인력운영, R&D 혁신 등을 통해서 창출한 **비용절감액** 또는 **매출창출액**을 의미

*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산출한 개념

* 다만, **생산성 기여액**은 자체 노력을 계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 특성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, **규모의 크기가 생산성 수준이나 노력의 정도에 비례하지는 않음**

○ **(기여액 구성)** 비용절감과 매출창출로 구분

- 비용절감은 연료구매 시스템개선, 자재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구매·관리 비용을 절감

* (비용절감 사례) 발전사가 연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구매비용을 절감한 경우

- 매출창출은 신기술의 개발, 인력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창출한 신규추가 매출과 기술혁신을 통해 동일한 자원의 투입으로 산출물의 규모를 증가시킨 경우 등

* (매출창출 사례) 발전사가 무고장운동 노력을 통해서 고장없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거나, R&D 기술이전을 통해 추가 매출 창출

□ 매출액 및 부가가치와 연관성

○ '생산성 기여액'은 기관의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창출된 비용절감 혹은 추가 매출창출로 정의되는 바, **생산성 기여액이 해당 기관의 부가가치와 동일한 것은 아님**

○ 다만, **비용절감액이 증가**하고 **추가 매출이 증가**할수록 **기관의 생산성 기여액이 증가**하고, 이에 따라 **부가가치가 향상**될 수 있음

참고2 발전5사 주요과제 추진내용

혁신 분야	추진과제	내 용
자 본 생산성	연료구매 원가 절감	• **(의의)** 연료(유연탄)는 발전사별 총원가의 50%~80%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• **(추진내용)** 연료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매부터 사용까지 단계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연료관리 추진('15), 적정 규모에 대해 발전5사 유연탄 공동구매 추진
	자산활용율 제고	• **(의의)** 발전설비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는 기관 차원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차원의 전력공급,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 • **(추진내용)** 발전사간 고장사례 공유 채널을 운영('15)하고, 고장사례 진단 보고서를 발행하여 공유, 생애주기형 설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4대 주요 설비(튜브, 터빈, 발전기, 변압기)를 집중관리하여 불시고장 예방
	효율적인 재고관리	• **(의의)** 자재구매조달·관리 비용은 생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, 설비보강·교체에 따라 조달·관리 비용이 지속 증가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 필요 • **(추진내용)** 정비예비품 공동관리, 자재공유 DB시스템 구축, RFID 자재관리 대상품목, 적용사업소 확대 추진('15)
노 동 생산성	현장중심 인력운용	• **(의의)** 신규사업 개발·관리,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에 따른 지원·관리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, 이에 따라 발생된 조직·인력운용의 비효율성 제거 필요 • **(추진내용)** 불요불급한 지원·관리 인력을 발전사 건설·운영, 안전관리, 고객 서비스 등을 위한 현장인력으로 재배치(지속)
	기술인력 활용 수익창출	• **(의의)** 발전운영의 가치사슬별로 정의된 역량을 실행할 수 있는 핵심인재·기술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대외 활용 필요 • **(추진내용)** CM(건설관리), 기술자문, 해외 O&M 기술용역을 통한 매출창출(남부의 필리핀·칠레, 중부의 인도네시아 등)
지 식 생산성	R&D성과 활용 제고	• **(의의)** R&D는 자원의 추가투입 없이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, 기술 자립화와 부품국산화 등은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요소 • **(추진내용)** 발전5사 공동의 기술로드맵을 수립('15), 연구과제 현장적용 강화, 주요 외산 자재에 대한 국산화 R&D 추진

참고3 발전5사별 생산성 기여액 목표

(단위 : 억원)

	구 분	'15년	'16년	'17년	합계
동서	**생산성 기여액**	578	679	783	2,039
	자본생산성 기여액	465	558	611	1,634
	노동생산성 기여액	62	59	67	188
	지식생산성 기여액	51	62	105	217
남동	**생산성 기여액**	1,388	1,463	1,553	4,404
	자본생산성 기여액	1,206	1,275	1,361	3,842
	노동생산성 기여액	170	172	172	514
	지식생산성 기여액	12	16	20	48
서부	**생산성 기여액**	806	1,000	1,182	2,988
	자본생산성 기여액	293	454	620	1,367
	노동생산성 기여액	444	473	489	1,406
	지식생산성 기여액	69	73	73	215
남부	**생산성 기여액**	276	276	395	947
	자본생산성 기여액	197	202	322	721
	노동생산성 기여액	77	72	71	220
	지식생산성 기여액	2	2	2	6
중부	**생산성 기여액**	508	557	824	1,889
	자본생산성 기여액	383	522	701	1,606
	노동생산성 기여액	28	27	26	81
	지식생산성 기여액	97	8	97	202
총계	**생산성 기여액**	3,556	3,975	4,737	12,267
	자본생산성 기여액	2,544	3,011	3,615	9,170
	노동생산성 기여액	781	803	825	2,409
	지식생산성 기여액	231	161	297	688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